

21세기는 왕도의 일중·미중 제후 시대로 (2)

◎ 이심전심으로는 통하지 않는 싸움으로라도 매사를 분명하게

중국과 장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 상담할 때는 특히 최초에 말다툼을 하십시오. 예컨대 깊이 따지고 들어가 싫은 소리를 하면 되는 장사도 안되는 것 아닌가,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상담이 어려워지므로 나중에는 이심전심으로 그런대로 해보자고 생각하기 쉽다. 또는 저 사람이 소개한 것이므로 염려없다든가로 최초에 철저하게 말다툼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최초에 말다툼으로 싫어할 말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상담을 하자고 할 때에 거래를 시작하면 되고,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상대라면 장사 안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일중(日中) 간의 장사를 알선해 온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경험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말다툼은 적당히 하면 안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고르는 일이다. 파트너는 한번 고르면 그것으로서 좋고 나쁘고는 결정적이 된다. 그러므로 파트너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투자할 때도 파트너를 고를 때도, 중요한 것은 사장이 직접 하거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꼭 직접 결심하도록 부탁한다.

지금 중국은 조용한 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치 혁명이 아니라 가치관 또는 인생관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사회 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에서는 한창 혁명 중이어서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혹시 계약

서를 교환할 경우에는 필히 작은 일이라도 염려되면 전부 계획서에 써 넣어야 한다.

◎ 진지하고 솔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상대의 프라이드를 생각하여 언제나 겸허하게

중국과 장사할 경우의 사고 방식이나 태도에 대하여 나의 마음 가짐은 “진지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의 셋이 되겠다.

나는 료승지(廖承志)라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과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사이였다. 그는 정식으로 중국의 국가 부주석으로 발령되기 이틀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다.

여담이지만, 료승지 씨가 ‘다카사키 씨는 만날 때마다 기무라 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관계이냐’고 물어 온 일도 있었는데, 다카사키 씨는 아주 솔직하고 겸허한 분이며, 그러면서도 아주 착하고 애정이 풍부한 분이였다.

기무라 씨가 료승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적당히 말할 수는 없는 성격이므로, 내 생각대로 말할 것이니, 잘못이 있으면 언제고 염려 말고 즉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만일 당신이 염려하여 잘못을 보고만 있으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 잘못이 점점 심하게 된다. 그러면 고치기도 어렵게 되므로, 반드시 그때그때 즉시 말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해 왔다.

뒤늦게 알게 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잘 받아들여진 것 같다. 그래서 ‘기무라라는 사람은 아주 솔직하고 다르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

그 후 료승지와 식사를 함께 하였을 때 그는 ‘기무라 씨, 중국 사람은 민족적 프라이드가 대단히 높은 국민이니까 그 점만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중국 사람은 대단히 프라이드가 높다. 그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잘 하시오 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였는데, 내가 솔직한 것은 매우 좋으나 솔직한 결과는 아무래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만큼 진지하게 말하였는데도 너는 아직 내 뜻을 모르냐’하며 어느새 오만해 지기 쉽다. 나는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 솔직하다 보니, 중국 측에서 보면 오만하게 되겠지요. 료승지 씨는 그런 말을 누구한테서 듣고 걱정이 되어 나에게 말해 준 것 같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솔직한 것도 좋지만 겸허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하여도 같지만 특히 중국과 교섭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고 일을 하면 대체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아주 공통점이 있다. 서로가 솔직하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무엇인가 반대할 경우에도 분명히 반대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얼마 후에 중국의 주용기(朱鎔基)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그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친구와의 대화 중에 일본이 화제가 되었을 때에도 내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주 국무총리는 ‘기무라와 같이 솔직한 일본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과 얘기할 때에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다만 나처럼 오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주은래가 어학 공부를 권하여, 모택동도 영어를 공부

중국과 교섭을 할 경우 ‘어학은 꼭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것은 역시 리더가 되려면 필요할 것이고, 자식이나 손자 정도는 영어만큼 중국어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말은 주은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식사에 초대 받아 국무총리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기무라 씨는 중국어를 공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 나이에 너무 무리다’고 대답하였더니 ‘그러면 모 주석을 보시오. 모 주석은 나보다도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더랍니다. 모택동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다. ‘당신은 아직 젊으니 안될 리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가 하고 생각하였으나 전혀 공부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 파트너가 료승지였으므로 중국어가 전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회담 등의 경우에는 우수한 통역이 따라 주므로 필요 없는 것을 핑계로 어학 공부를 안하였다.

그러나 그 때 주은래 국무총리가 ‘어학 공부 하시오’라고 말한 후에 ‘기무라 씨와 내가 통역 없이 직접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니 가슴이 찡하였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럼 이번 기회에 정말로 어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작심 삼일이나 작심 열흘 정도로 지금도 통역 없이는 전혀 대화가 안된다. 통역이 너무 좋든지 파트너가 너무 좋으면 나처럼 되므로 어학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그 위에 꼭 해주어야 할 것은 좋은 친구를 갖고 있을 것, 친구를 사귈 때는 진지하고 솔직하면서도 겸허할 것을 잊지 않도록 바란다. ♣